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문선배 | 편집인 : 이계홍 |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 (주)한우리SJM

2024년 (불기 2568년) 7월 22일 (월)

<http://dongguk.or.kr>

제268호

“충무로 동창회관 시대 열린다”

충무로영상센터로 9월 중 이 전해 동창회관 건립 불씨 되살린다



총동창회 사무실이 31년간 머물렀던 인사동을 떠나 충무로영상센터(5층)로 이전한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동창회관 건립을 총동창회 핵심지표로 관리하면서 17년간 진전이 없었던 2007년 기본합의서 이행을 선결과제로 추진해 재단 이사장 돈관스님과 윤재웅 총장의 합의를 이끌어내 동창회관 건립의 불씨를 되살렸다.

총동창회는 '동창회관 건립에 관한 학교법인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총동창회 기본합의서(2007.11.8.) 이행에 따른 조치로 충무로영상센터 본관(중구 필동2가 82-1번지) 5층 일정공간(174.26㎡)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6월21일 체결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교과부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만큼 사무처는 타 대학 동창회 사례를 충분히 참조했다. 총동창회는 8월 중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는대로 충무로영상센터로 9월 중 사무실을 이전할 예정이다.

상생하는 동창회 분위기 이어가자

사무처는 임대차 계약 체결에 앞서 5월21일 역대회장을 초청해 진행 경과와 이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참석한 전순표(24대), 송석환(25대), 전영화(26, 27대), 박대신(28, 29대) 前 회장은 충무로영상센터로 이전을 환영하며 지속 가능한 동창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6월4일에는 자문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동창회관 이전의 건을 승인받았다.

충무로영상센터 이전은 법인과 학교, 총동창회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상생하는 동창회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동창회관 건립의 불씨를 살려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총동창회'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후원의 밤’

총동창회장 1억원·총동창회 10억원 등 하룻밤 211억원 모금

동국 발전을 기원하는 후원의 밤 행사가 6월21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렸다.

‘함께하라 정진하라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라는 메시지를 캘리그래피로 형상화한 퍼포먼스로 막을 올린 행사는 종단과 학교법인, 대학과 총동창회가 참여해 사전약정 191억원, 현장약정 20억원 등 총211억원을 모금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1억원을 후원하고 총동창회에서 10억원을 약정해 모금 발전을 염원하는 동문들의 역할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재웅 총장은 비전 스피치를 통해 취임 후 수립한

‘동국 메타 플랜 120’에 따라 개교 120주년이 되는 2026년 국내 5위권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상기시켰다.

이어 “과거 3대 사학으로서 동국대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건학이념 구현에 150억, 미래 인재 양성에 100억,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억, 캠퍼스 인프라 조성에 550억 등 1,000억원의 기부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권선 스피치를 통해 “재단과 학교, 총동창회가 하나가 되어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교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자”며 “오늘은 베풀

수 있는 풍요로움이 가득한 날이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날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총동창회 이전 주소 안내 : (0462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길 2, 동국대학교 충무로영상센터 본관 526호 총동창회 사무처

서울 40명 · WISE 24명 장학금 전달

“동국사랑 · 후배사랑 이어가는 동국인 되어 주길”



▲ 서울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은 문선배 총동창회장과 동국장학회 △최대식 △이호중 감사가 참석해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 WISE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에는 동국장학회 이사장 홍파스님과 이사 5명, 감사 2명이 참석해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동국장학회(이사장 홍파스님) 2024년 장학금 수여식이 WISE캠퍼스와 서울캠퍼스에서 각각 열렸다.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에서 6월 18일 열린 수여식에는 이사장 홍파스님을 비롯해 나경미 △박대신 △민홍기 △문선배 △해운스님 등 장학회 이사와 △최대식 △이호중 감사가 참석했다.

이사장 홍파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동국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장학생 모두가 학업에 최선을 다해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분야에 최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완하 WISE캠퍼스 총장은 축사를 통해 “학생들이 받은 장학금은 선배들이 후

배들을 위해 소중한 정재를 모아서 수여하는 장학금임을 꼭 알아야 한다”며 “후배들은 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사회를 이끄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서울캠퍼스는 6월21일 로터스홀에서 단과대학과 직능별 동창회에서 추천받은 서울캠퍼스 재학생 4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이사장 홍파스님을 대신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앞으로 더욱 용맹정진을 당부하면서 큰 바다로 나아가 성장한 후 회귀하는 연어처럼 모교사랑, 후배사랑을 이어가는 영원한 동국인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대 총동창회장 만해 한용운 80주기



초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만해스님 열반 80주기를 맞아 6월28일 모교 정각원에서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학교법인 주최 · 주관 하에 △헌향 △헌화 △행장소개 △봉행사 △추도법어 △추모사 △시낭송 순으로 진행됐다.

모교 전신인 명진학교 제1회 졸업생이기도 한 만해 스님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불교 승려이자 독립운동가, 시인으

로 1918년 동창회의 첫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일심회 초대회장을 맡았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35만 동문을 대표해 헌향과 헌화하고 만해스님을 추모하며 가르침을 이정표 삼아 새로운 100년 역사 창조를 위해 힘차게 정진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금용 동국문학인회장은 자작시 <만해스님 80주기 추모다례제에 올립니다>를 낭송하며 추모의 마음을 더했다.

모교에서 봉행되는 다례제는 2021년 만해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계기로 처음 봉행돼 매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만해 탄신일인 8월29일에는 사단법인 만해사상실천연합(이사장 홍파스님)에서 주최하는 만해평화문학축전이 매년 심우장에서 열리고 있다.

포항 원법사 · WISE캠퍼스 방문

해운스님 운영하는 원법사장학회 사례 살펴봐



▲ 포항 원법사 주지 해운스님이 운영하는 원법사장학회에는 회원 600여명이 장학사업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동국장학회 이사장 홍파스님을 비롯한 이사진과 감사는 6월18일 포항 원법사(주지 해운스님)를 방문해 4월에 이어 두 번째 간담회를 실시했다.

덕국장학회로 2008년 출발해 장학과 포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2015년 설립된 원법사장학회(이사장 해운스님)의 활동사례를 살펴보고 기부자 확충 논의의 이어가는 자리였다.

원법사장학회 이사장 해운 스님은 “재학시절 받은 장학금을 후학들에게 선순환하고자 졸업 후 원법사장학회를 설립했다”고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출범한지 30년이 된 동국

장학회가 지속 가능한 장학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혜자들이 대물림 운동에 참여하는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환원받는 동반 상생의 사업 아이템 발굴하는 것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이사장 홍파스님은 “지속 가능한 동국 장학회를 위해서는 개교 118년의 역사와 106년의 총동창회 활동을 통해 축적된 35만 동문들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동국장학회 이사와 감사는 류완하 WISE캠퍼스 총장과 환담을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마치고 WISE캠퍼스로 이동해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다. 장학금 수여식 후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구소멸이라는 위기 속

에 WISE캠퍼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류완하 WISE캠퍼스 총장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환담을 나눴다.

류 총장은 이 자리에서 “WISE캠퍼스가 설립된 지 46년째가 되고 경주에서 배출한 졸업생은 6만7,000여명에 달한다”며 “글로벌 대학으로 경쟁력을 갖춰 지역의 미래와 함께하는 지역 거점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



‘제22대 국회의원 동국가족 당선자 초청 축하연’이 5월21일 저녁 6시 모교 로터스홀에서 열렸다.

학교법인과 모교, 총동창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축하 행사에는 △구자근(법학 86/재선) △서천호(행대원99/초선) △이상식(대학원09/초선) △정준생(국민윤리

88/초선) △이주영(의학01/초선) 등 당선인이 참석해 축하패와 꽃다발을 받았다.

김종필 상임부회장의 재치있는 사회로 당선인은 여야, 진보와 보수를 넘어 동국발

전을 위한 ‘동국당’을 외치며 동문의 정을 나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지역구 10명, 비례대표 2명 등 총12명의 동문이 당선됐으며,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나타났다.

“12학번 선배미 뽐뽐 ... 영케이”

축제 공연 후 주점 방문까지



▲ 모교 축제에서 공연하는 영케이(강영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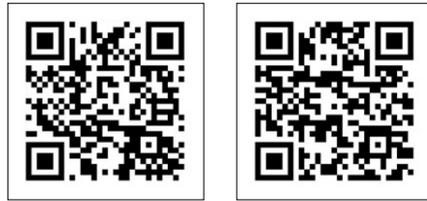
서울캠퍼스 봄 축제가 5월28일부터 30일까지 열렸다. 요즘 대학 축제는 어떤 연예인을 섭외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면서 대학가는 ‘연예인 라인업 각축전’이 벌어진다.

모교 출신 많은 연예인 가운데 가수 영케이(본명 강영현)는 경영학과 12학번으로 2017년,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자신이 속한 그룹 데이식스 완전체

로 무대에 올라 열띤 공연으로 재학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영케이가 “12학번 강영현입니다”라고 자기 소개하자, 열띤 호응을 보내는 후배들의 모습은 훈훈함을 자아냈다.

영케이는 모교 부심을 드러내는 등 선배다운 남다른 포스로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Best Part’, ‘콩크레추에이션’ 등을 공연했다.

또, 무대를 마치고는 멤버들과 함께 경영학과 주점으로 향해 후배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MBC 방송 프로그램 ‘전참시’ 303회에서는 해당 장면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시면 링크가 나타납니다. 클릭하면 동영상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축제 즐기는 캠퍼스 추억 나들이

여자총동창회, 장학금 모금 위한 일일 주점 열어



여총을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다. 작년에는 7080 감성 일일차집과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전달한 바 있다.

재학생 응원 커피차 이벤트

여자총동창회는 6월10일 학기말 고사 중인 재학생을 응원하며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이어갔다.

재학생과 소통 공감하는 행사로 세번째를 맞은 이벤트는 재학생들의 큰 호응으로 커피와 음료를 받으려는 대기줄이 끊이지 않았다.

바쁜 손놀림으로 부지런히 커피와 음료를 준비하는 동여총 회원들의 모습에서는 후배를 사랑하는 따뜻한 정이 넘쳐 흘렀다.

여자총동창회(회장 윤미정)는 5월30일 다향관 앞에서 일일주점을 열었다.

모교 축제 기간에 맞춰 캠퍼스 시절을 소환하는 이벤트와 함께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기부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였다.

동여총 회원들은 삼삼오오 음식을 장만하고 버스킹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살리는 등 일일주점을 찾은 동문들을 맞이했다.

윤미정 회장은 취임 당시 “단순한 친목 모임보다는 모교에 보탬이 되면서 회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통해 동



시민과 함께한 임석대동제



WISE캠퍼스는 글로벌 대학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경주시내 곳곳에 홍보 현

수막을 게시해 시민,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홍보했다.

특히, 축제 중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성공’을 염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시민들의 환영을 받기도 했다.

임석대동제는 통일신라시대의 비석인 임신서기석이 WISE캠퍼스가 위치한 곳에서 발굴된 것에 유래되어 임석대동제라는 이름으로 총학생회가 주관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10회 동국가족 친선 골프대회

- 단과대학 · 학과 · 학번 · 지역 · 직능 · 개인별 -

- 일 시 : 2024년 8월 27일 (화) 오전 11시 ~
- 장 소 : 양평 TPC 퍼블릭 골프장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 참가비 : 25만원 (캐디피, 그늘집 개별 정산)
- 입금계좌 : 하나은행 231-890041-26804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접수마감 : 총 30개팀 (120명) 선착순 (입금순)

※ 신청자는 전화 02-733-0303번으로 참가자 명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Where is your mind?

낙산 묘각사 템플스테이 Myogaksa Templestay

도심속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mygaktemple@naver.com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낙산묘각사

☎ 02.763.3109



WHERE?

Q. 전문직 · 엘리트 · 노블레스 결혼은 어디서?

A. 바로여기! SKY등 32개 명문대학교 총동창회와
결혼정보서비스 단독 제휴한 국내 유일! 엔노블



N.NOBLE

MATCH-MAKING BIBLE

동국대학교 총동문회 결혼정보 제휴사
엔노블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동문전용상담 02-3445-2557)

대표상담 1577-2050

등록번호
서울-강남-국내
15-0005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서울 / 대전 / 대구 / 부산 / 제주 / LA / 뉴저지 / 아틀란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11 (신사동, 엔노블타워) www.nnoble.co.kr

“아름다운 동행으로 동국과 함께 합니다”

생활풍수CEO과정 동문회 (회장 도심스님)



▲ 모교 사회과학관에서 4월21일 제2회 학술세미나를 갖고 다양한 풍수학설을 발표하며 생활풍수 활성화에 도모했다.

출가공동체 총동림 동문회 (회장 진철스님)



▲ 16대 집행부 출범 이후 4월24일 첫 봉사활동으로 사회복지원각사를 찾아 든든한 한 끼를 대접하며 온기를 전했다.

행정대학원 동문회(회장 홍종표)



▲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 급식소에서 5월20일 배식 봉사를 하고 후원금을 전달하며 자비행을 실천했다.

83학번 동기회 (회장 안성준 · 고헌미)



▲ 수원 화성 둘레길을 트레킹하며 '정조의 꿈과 한'을 테마로 문화탐방과 함께 동기간의 우애를 다졌다.

동국 708090 동문회 (회장 김종필)



▲ 정선 하이원리조트 하늘숲길 걷기 축제에 참가해 자연을 만끽하며 소통과 어울림의 트레킹으로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ROTC 동문회 (회장 이충주)



▲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추모 행사를 마치고 남산걷기를 하며 동문 화합과 선후배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제학과 동문회 (회장 오수환)



▲ 모교 만해광장에서 동문 선후배와 재학생이 함께 어울려 족구를 즐기면서 경제학과 동문간 화합을 도모했다.

지리교육학과 동문회 (회장 조명일)



▲ 모교 만해광장에서 6월6일 선후배 체육대회를 통해 재학생과 함께 어울리며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대구경북 동창회 (회장 손기범)



▲ 남해일원으로 문화탐방을 떠나 금산 보리암, 독일마을을 투어하고 한우축제와 수산시장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국건축 동문회 (회장 김승욱)



▲ 모교 만해광장에서 6월15일 한마음 가족 아유회를 열고 동문들이 교류하며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한마당을 펼쳤다.

한의과대학 동문회 (회장 최유형)



▲ 경주 신라CC에서 골프대회 및 트레킹대회를 개최하고 일산한의원관 건립기금 및 한의과대학 발전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남가주 동창회 골프회



▲ 인더스트리힐스 골프클럽에서 6월18일 정기 골프모임 행사를 개최했다. 골프회는 매달 4째주 토요일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KS표시 인증, 가스주입 단열 복층유리 단체표준 인증

LX하우시스 KCC e·MAX Club

차원이 다른 명품 고기능성 복층유리

소프트 로이 복층유리 | 아르곤 가스주입 복층유리 | 삼중 로이유리

작은 변화 하나로 국내 판유리 업계를 선도하다

단열성능 · 생산성 향상!
결로현상 · 가스누출 최소화
생산 공정 완전 자동화로 일정한 고품질의 제품 생산!

그린복층유리 최초 개발자 (주)삼호글라스 조용국 회장

품질우선 경영 후대를 위한 초석

▼ 판유리 CNC 절단 및 서물 이동시스템

▼ TPS 단열간봉 자동부착 로봇

SHG 주식 회사 **삼호글라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진로 191-45
Tel. 031) 542-1888 / Fax. 031) 542-1887

회장 **조용국** (불교대학원 CEO과정 8기) Mobile. 010.5248.1534
그린 복층유리 최초개발자 / 불교대학원 CEO과정 총동문회 산악회장

ISO 9001 : ISO 45001

토공, 철콘, 상하수도, 포장, 비계, 습식방수, 보링그라우팅

Since 1992
믿음과 신뢰를 주는 대자기업(주)

원칙과 정도에 맞는 기술자의 양심으로
성실시공을 약속합니다.



회장 **조석규** (토목공학과)

067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뒀로 154, 3F (양재동, 호성B/D)

Tel. (02) 579-7651~2 / Fax. (02) 579-7650

E-mail. djcc579@hanmail.net



대자기업(주)

양평군수 전진선 (경행79) 동문

“관광과 환경도시로 양평군을 새롭게 리세팅할 것”

한 시간 이상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헤쳐나오다 양평의 두물머리에 이르자 비로소 마음이 탁 트인다. 산천경개가 그림처럼 아름답다. 북한강과 남한강의 합류 지점인 두물머리 강물은 너무나 평화롭다. 수량이 풍부하고 물가까지 내려온 푸른 나무들이 가슴 시리게 한다. 이곳에서 사는 이들은 저절로 삶의 보상을 받을 것 같다.

양평군수 전진선 동문은 이 점을 놓치지 않는다.

“양평군은 서울 면적의 1.5배나 되는 넓은 땅이고, 인구는 13만명입니다. 전국 시군이 인구가 줄고 있지만 양평군은 지난해 4500명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은퇴자 등 비교적 넉넉한 사람들이 깨끗한 물과 풍성한 산을 보고 찾은 것이죠. 군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관광과 환경도시로 양평군을 새롭게 리세팅할 것입니다.”

- 자료를 보니 두물머리와 용문산, 양강섬을 휴식과 힐링의 관광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을 하셨더군요.

“그렇습니다. 양평은 종교 관광지로서 최적지입니다. 용문산의 사나사는 향토 절이긴 하지만 고려시대의 큰 스님인 보우선사가 중건한 유서깊은 사찰이고,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양근 성지, 기독교 성지가 있습니다. 이들 성지 주변을 잘 꾸미려고 합니다. 개발 이상의 관광 비전이 제시될 것입니다.”

이중 사나사는 조계종 제25교구본사인 봉선사에 속해있고, 용문산의 주봉인 백운봉의 기슭에 자리잡은 산세 수려한 절이다.

- 양평군이 13만 인구라면 시로 승격할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왜 시 승격 신청하지 않습니까?

“양평군의 인구 증가와 함께 꾸준히 거론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시 승격을 위한 고려를 논하기에 앞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 승격에 대한 논의는 우리 군과 주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현재 주민들 사이에는 승격의 장점을 들어 찬성한다는 주장과 단점을 들어 반대하는 주장 등 주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 승격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의 반대견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시 승격이라는 사안이 무조건적으로 좋고, 나쁘다를 쉽게 결정할 수 없듯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시 승격 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73년 팔당댐이 완공되면서 상수원 보호라는 이름 아래 농민들은 농작물에 농약을 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곡식 수확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당시 7만명의 인구 중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했는데, 서울 시민 물 먹이느라 양평의 농업이 희생을 강요받은 것이다. 농민들의 원성이 높자 서울시가 물 부담금으로 연 140억원을 지원했는데 상수원 보호 인센티브 치고는 매우 빈약했다. 양평군 재정의 2%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파구로 관광문화도시로 전환하고, 미술관 박물관 등을 유치했다. 한강 수계의 모델, 식당 등 수질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이들 건물들을 철거했다. 그러니 강변이 더 수려해졌다. 근래는 농토에 친환경 쌀과 채소, 수박 등을 심어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전 군수는 그동안 도로의 병목 현상 때문에 서울 시민이 양평으로 들어오는 데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금명간 서울-양평간 고속도로가 뚫리면 양평이 최적화된 관광도시·환경도시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또 △세미원 두물머리 국가 정원 추진 △양수리-거북섬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양근대교 왕복 4차선 확장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 △지평-양동 전철 연장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양평군의 미래를 행정가로서 포부를 밝히지만 그는 전직이 경찰 간부 출신이다. 모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석·박사과정도 마치고 경찰에 투신 후 경찰청 본청을 비롯 양평·여주·영동 경찰서장,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 인천지방청 경무과장 등 경찰 고위직을 고루 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찰 출신 같지 않은 인상이다. 잘 생긴 동네 형 같은 따뜻한 품성과 부드러운 외양을 지녔다. 마음씨 좋은 행정가의 인상이다. 이런 모습이 정치적 큰 자산으로 보인다.



- 경찰서장 재임시절의 실적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농촌에서는 어르신들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면허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일이 급하면 우선 타게 되지요. 그렇다고 단속만 해서는 안됩니다. 농촌의 실정상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는 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양평군만 해도 면적이 서울의 1.5배인데, 오토바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지요. 이렇다 보니 교통사고 중 60% 이상이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고심 끝에 고안해낸 것이 노인들에게 운전면허 교육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장비를 갖추는 등 매뉴얼대로 가르친 결과 오토바이 사고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얼마 전 84세의 노인이 노환으로 타계하면서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관에 넣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면허장을 인생의 가장 큰 ‘보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가슴 뭉클했습니다.”

- 양평군의회 의장도 역임하셨는데, 보람있었던 얘기가 있다면?

“2020년 양평군의회 의장 재임 시절, 코로나19가 창궐했습니다. 주민 방역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도록 지원

한 결과 여타 시군보다 환자를 최소화하는 청정지역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양평은 비닐 하우스 재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설 교체비가 많이 드는데, 농민의 원예농업과 수박·야채농사를 지원하기 위해 군 예산 50%, 자부담 50%로 배정했습니다. 고향(양평군 지평면)에서 일한 것이 무엇보다 보람이 있습니다.”

- 모교 재학시절의 얘기로 돌아가볼까요. 왜 경찰행정학과를 지망했습니까.

“국가에 대한 봉사라는 국가관이 서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산하 봉사단체인 KUSA 활동을 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KUSA는 1963년 창설돼 역사가 오랜 기구인데, 저는 1980년 동국대 KUSA 회장을 맡았죠. 농촌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위를 안한 것도 아닙니다. 소극적이지만 동료 학생들과 함께 총무로-명동-시청으로 진출했지요. 동국대가 유독 시위가 격렬했는데, 그건 동서남북 도망갈 구멍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튀면 기동대가 잡지 못하죠. 사회학과, 사학과, 철학과 친구들이 주동이었고, 경행과는 눈치껏 했죠. 인천 송도로 야유회 갔을 때, 학우들과 함께 시대를 고뇌하면서 통음하던 때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 재학시절 기억나는 스승은 있나요?

“이항우 교수죠. 제 박사학위 담당 교수이기도 했고요. 경찰행정과생은 시위대 앞에서 지 말고 충고하셨죠. 술을 조금만 먹어도 딸기코가 되는 분인데, 동네 아저씨처럼 다정다감한 분이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더 많이 만났죠. 총장 선거에서 1등을 했는데도 2등에게 총장 자리를 뺏긴 불운한 분이셨죠. 총장을 하셨으면 학교를 한층더 레벨업시켰을 겁니다. 비전도 크고, 남다른 애교심과 제자 사랑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난해 중앙일보 전국 대학 평가에서 모교가 종합평가 8위를 한 것을 보고 가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의 한복판에 큰 캠퍼스를 갖고 있는데, 그런 지리적 요건을 극대화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불교 종립 학교인만큼 불교쪽의 지원이 강화되어 재정기반을 튼튼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재정이 튼튼하면 장학 혜택을 통해 전국의 우수학생들을 뽑을 수 있고, 세계적 석학도 초빙할 수 있죠. 앞으로 5대 대학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 총동창회에 바라는 점은?

“경찰 출신 모임인 경우회가 있습니다. 경우회는 지부, 지회 회원들이 결속할 수 있도록 행사가 있으면 본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줍니다. 모교 총동창회 역시 동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회·지부·학과별·직업별·직능별 동문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건인했으면 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전진선 군수는 부인 추미정씨와의 사이에 1남 1녀 2 자녀를 두고 있다. 자녀들은 장성해 독립해 살고 있다.

이계홍 (국문65,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 인터뷰 全文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동국대 남산캠퍼스는 백성욱의 사리(舍利)

백성욱 박사는 승려 출신으로 제2대, 5대, 6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하면서 모교 제2대 총장과 재단 이사장으로 자신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교에 다 쏟아부었다. 모교 남산캠퍼스가 조성된 과정을 『땅에서 일어난 하늘, 백성욱』(저자 장웅연)에서 발췌해 소개한다.

백성욱이 동국대 총장에 취임했을 때 학교는 더 없이 혼란스러웠다. 나라의 수도가 아직 서울이 아닌 부산이었던 때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했고 전선이 수세에 몰리자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을 임시수도로 삼았다. 이후 서울을 탈환하기는 했으나 전쟁은 계속됐고 나라의 수뇌부는 좀처럼 부산을 나서지 못했다. 이러니 나랏일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웠다. 교육도 곤욕을 치렀다. 각 대학의 학생들은 최후방에 차려진 '전시 연합대학'에서 집단으로 수업을 받았다. 사상 유례가 없는 제도 속에서 동국대생들도 어렵게 학업을 이어갔다. 교수진도 황폐해졌다. 정지용 시인, 김기림 평론가 등 수많은 동국대 교수들이 전쟁 기간 납북되거나 월북하였다.

백성욱은 취임식도 치르지 못하고 집무를 시작했다.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학교의 서울 귀환이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다. 휴전협정은 종전이 아니라 잠깐의 정전에 합의한 것일 뿐이었다. 총알과 포탄이 언제 다시 날아다닐지 모를 준전시상태였다. 서울 귀환과 관련해 학내에서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좀 더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보며 기다려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으나, 학교 책임자인 백성욱이 대담하게 결단했다. 1953년 8월 20일 3년 여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동국대 교직원 제1진이 서울로 출발했다. 선발대가 큰 무리 없이 자리를 잡자 부산에서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던 교수들도 하나둘씩 서울로 돌아왔다. 결국 동국대는 다른 학교들보다 이른 9월 초에 본교에서 개강을 할 수 있었다.

총장의 남다른 추진력으로 복귀는 남들보다 빨랐지만, 미래는 여전히 암울했다. 학사는 그런 대로 정상화됐으나 그 학사를 이어갈 학사가 태부족이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서울캠퍼스는 서울의 여느 거리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잿더미였다. 전문부에서 사용하던 종로구 명륜동 건물은 미군 헌병대에 징발된 상태였다. 학부가 사용하던 남산 필동 교사에는 잡초만 우거졌다. 2만4000평에 이르는 너른 땅에는 말 그대로 땅만 있었다. 도로와 축대는 상당부분 끊기고 무너졌다. 인쇄소는 폭격으로 소실됐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80평쯤 되는 공터에 가건물을 지어 강의실을 재개했다. 명성이 높았던 도서관도 무너졌다. 불교 고서를 비롯한 수많은 희귀본들은 인민군들의 휴지로 사용되며 없어졌다. 인민군도 중공군도 도둑질을 많이 해갔다. 아군 쪽에서도 흠쳐가려다 발각되는 일이 있었다.

피폐한 환경과 흉악한 인심 속에서 학교 구성원들은 황망했고 다들 자신감을 잃었다. 임시교사가 조금씩 늘어갔지만 어디까지나 임시였다. 1953년 11월 백성욱은 간이로 만든 식당에서 취임식을 치렀다. 그리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재건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인사와 재정 등 학교 운영의 전권을 틀어쥔 백성욱은 교수와 학생과 동문의 지지를 바탕으로 인간 불도저의 모습을 보여준다. 덕분에 동국대의 외형과 내실은 증흥의 길을 걸었다. 1961년 정년 퇴임 때까지, 백성욱이 그야말로 '황야의 거인'으로 우뚝 서서 학교를 일으켜 올렸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고전적인 수사가 실제



백성욱

| | |
|------|------------------------|
| 1917 | 불교중앙학림 입학 |
| 1919 | 중앙학림 졸업, 상해임시정부 참여 |
| 1922 | 독일 남부 뷔르츠부르크 대학 철학과 입학 |
| 1925 | 철학박사 학위 받고 귀국 |
| 1926 | 중앙불교전수학교 교수로 취임 |
| 1950 | 내무부 장관 취임 |
| 1951 | 동국대학교 동창회장 취임 |
| 1953 | 동국대학교 총장 취임 |
| 1954 | 재단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취임 |
| 1957 | 재단법인 동국대학교 장학회 이사장 취임 |
| 1961 | 동국대학교 총장 퇴임 |

현실에서 나타났다.

학교 신설부터 시작했다. 펜대만 굴리다 보면 밥은 안 나오고 말만 나오는 법이다. 백성욱은 전후 복구를 위한 기술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이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산업화가 국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해지리란 판단도 있었다. 문과대학에 이학부를 증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존의 문과대학을 문리과대학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1954년 2월 문교부로부터 문리과대학 변경을 인가받았다. 그해 3월 신학기부터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된 이 학부의 학과는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였다.

대학원의 몸집도 불렀다. 기존의 대학원 석사과정은 불교학과, 영문학과, 정치학과 등 3개뿐이었다. 백성욱은 1955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3개 학과에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등 4개 학과에 석사과정을 새로 만들었다. 박사과정도 신설했다. 불교학과와 영어영문학과에서 박사를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이승만 박사' '조병욱 박사' '백성욱 박사' 처럼, '박사'는 최고의 학위인 동시에 당대 지식인이자 저명인사를 위한 최고의 존칭이었다. 그만큼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사회에서 극소수였다.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의 신설과 증설은 인재양성과 직결 됐다. 물론 뛰어난 인재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문제는 난제로 남아있었다.

문리과대학에 이학부가 신설되면서 대학의 정원도 대폭 증원되었다. 또한 전쟁 기간에 국군과 학도 의용대에 입영했던 재학생들이 한꺼번에 복교했다. 기존의 강의실만으로는 이들을 수용하기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석·박사과정이 새로 생기고 늘어나면서 다량의 연구 설비와 연구실도 필요해졌

다. 반면 현실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초라했다. 고생스러웠던 피난지 부산에서 서울캠퍼스로 돌아가는 했으나 사정은 거의 똑같이 남루했다. 교정에는 몇 동의 목조건물 그리고 소나무 판자로 대충 지어놓은 20여 개의 강의실과 사무실이 전부였다. 교수와 학생들은 목조 널빤지 실험실에서 4인용 실험 테이블 8개를 놓고 각 학년이 돌아가면서 사용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백성욱은 일단 종합대학교의 위상에 걸맞은 본관 건물 건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연세대 고려대의 본관처럼 캠퍼스의 중심에 자리한 근대식 디자인의 석조 건물을 짓기로 했다. 백성욱은 동국대가 '대한민국의 3대 사학'이라는 긍지를 가졌고 본관만 완공된다면 명문사학으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갖추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포부도 컸고 일을 벌이는 배포도 컸다. 총장 취임 다음 해인 1954년 4월 한국 건축계의 거장이었던 송민구(1920~2010)를 대학 건축본부 소장으로 앉혔다. 송민구는 고려 대학교의 인암동 캠퍼스를 설계한 사람이다.

그해 9월 본관(現명진관)의 설계도가 완성됐다. 지상 3층 35실, 연건평 1462평으로 1950년대에는 보기 힘든 규모의 건물이었다. 계획은 희망적이고 거침이 없었으나 문제는 돈이었다. 2억5천만원, 지금으로 따지면 25억 원 이상의 거액이 드는 공사였다. 물론 백성욱의 삶에서 금전은 그리 큰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원력이 크고 절실하면 돈은 반드시 나온다고 믿었다.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당시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광유지주식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각해 건축 예산을 만들었다.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되자 학교 후원회와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재학생과 학부모들을 설득해 매 학기 등록금에 건축비를 조금 더 걷었다. 건축비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자 주한미군도 도와주었다. 미8군이 대량의 목재와 시멘트를 원조했다. 1955년 7월 정초식을 가졌고 12월에 상량식을 거행했다. 불도저와 트럭이 교문을 들락거리며 먼지와 소음을 일으켰다. 하지만 교수와 학생들은 일류대학으로 도약하리란 기대감에 부풀어 연구와 학업에 매진했다. 마침내 1956년 12월 본관이 완공됐다. 총장실과 각 부처 사무실이 들어갔으며 24개의 강의실을 확보했다.

본관 건축이 한창일 무렵에 이미 2차 신축계획이 마련돼 있었다. 불교대학장 조명기 교수가 개인적으로 계약해 따냈던 필동2가의 대지 3300평과 84평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학교로 양도되었다. 2차 신축공사의 내용은 본관 앞에 전면 5층, 후면 3층 규모의 대학본부를 신축하고 본관 뒤에 연건평 876평의 3층 건물을 지어 과학관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1957년 3월 낡고 오래된 교사를 허물고 과학관 공사에 착수했다. 규모도 상당히 크고, 어느 대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초현대식 설계와 공법이 도입되었다. 지하실에는 생물학과의 무균실과 살균실을 설치하고 각종 실험기구를 넣었다. 1층에는 생물학과의 실험실과 표본실, 물리학과 실험실 등의 6개실, 2층에는 물리학과 실험실을 비롯해 농림대학의 표본실 등 4개실을 설비했다. 1억 7500만 환이 넘는 비용을 쏟아부어 1958년 5월 완

공했다.

명진의 원편에 있는 대학본부 공사는 1958년 10월 완료됐다. 연건평 2260평에 4층 규모로 총공사비 4억5200만 6000환이 투입됐다. 12월에는 대학본부 안에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강당이 생겼다. 과학관의 완공을 목전에 둔 1958년 5월 1일 중앙도서관 및 대학원 건물 신축공사가 들어갔다. 중앙도서관 및 대학원 건물은 대학본부 맞은편에 위치했으며 뒤쪽으로 장충단공원이 내려다보인다. 이 건물은 연건평 4257명으로 짓는 데에 4억7000만원이 들었다. 중앙도서관과 대학원건물도 완공되었고 동국대는 부속 건물을 합해 연건평 1만평이 넘는 대학으로 성장했다.

착공한 건물들이 속속 완공되면서 대학기구도 확장됐다. 1959년 1월 법정대학에 상학과와 경영학과가 신설됐다. 이로써 법정대학 법학과, 경제학과, 정치학과, 상학과, 경영학과 등 총 5개 학과. 아직 1차산업 시대였고 우수한 농업전문가 양성을 목

적으로 농림대학 내에 농림경제학과를 설치하기도 했다. 법정대 학내 행정학과 신설로 1960년을 시작한다. 전쟁의 참화로 기아에 허덕이는 국민에 대한 영양 관리와 과학적인 식생활 연구를 취지로 한 식품공학과 개설을 1961년 1월 인가받았다. 신학기부터 입학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리과대학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연극학과가 만들어졌다. 수많은 스타 연예인들을 배출한 연극영화학과와 모태다.

동국대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까닭은 백성욱이 나라의 대단한 실력자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느 날 경무대(청와대의 전신)에서 남산을 바라보던 이승만대통령은 남산에 엄청난 큰 공사판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신의 관저와 직선으로 마주한 지점이었다.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누비며 산줄기를 깎고 건물을 올렸다. 시야를 방해받게 돼 화가 난 이승만은 비서에게 “저 짓을 벌이는 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비서가 “백성

욱 박사가 동국대학교를 짓는 중이랍니다”라고 보고를 올렸더니, 이승만은 이내 얼굴에서 노기를 풀었다. “응 그러냐! 그럼 놔둬라.”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내무부장관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보필했었고 청렴과 강직으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백성욱이었으니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대통령이 이른바 국부로 불리던 시절이었고, 대통령의 화를 돋우는 일만으로도 중형을 받을 수 있는 권위주의 시대였다. 만약 다른 사람이 총장이었다면 오늘날 남산에 대학교가 제대로 들어섰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백성욱 총장 재직 시 동국대 남산캠퍼스의 모습은 60여 년이 흐른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시절 동국대에서 공부하거나 일했던 사람들은 “동국대는 백성욱의 사리(舍利)”라고 말한다.

[땅에서 일어난 하늘, 백성욱] 중에서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 저자 : 장웅연

제철소 환경에 특화된 위치 검출기

제품소개

www.pos-tech.co.kr



POSTECH CORPORATION (주)포스텍 대표이사 **이명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이앤씨벤처드림타워3차 1001호
Tel. 02-865-1595 | Fax. 02-865-1594 | E-mail. ptlee@pos-tech.co.kr

연안 유류 해상 운송업



(주)진양유조선

국내 해상유류수송의 35년 외길
주)진양유조선은 오늘도
그 자긍심과 책임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이사 회장 **황경환**

주소: 경북 경주시 서라벌대로 420, 2층
전화: 054)745-3071~2
팩스: 054)746-5556



(주)청음미디어

Cheong-Eum Media

www.cmcmedia.co.kr



첨단 영상·음향
MULTIMEDIA SYSTEM
SOLUTION

대표이사 회장 **박공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길 7, 5층 (대치동, 청음미디어빌딩)
Tel. 02-553-1240 | Fax. 02-553-1244 | E-mail. cmcmedia1@naver.com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영상음향 설계시공 - 45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송조상사

대표 송철근 (교육학과 85入)

고덕 국제중심도시



'축' 준공
(주)블루시티홀딩스
파인트리밸리빌딩

대표이사
최 인 규
(통계학과 79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3길 57-8, 고덕IC 입구



삼주이엔씨(주)

대표이사
곽 순 석
(조경학과 85수)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 학 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서학사 대웅보전의 정면 모습이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양식이다.

주지스님 **김 성 인** (김순옥)
(불교대학원 92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원곡2길 119 (교방동)
Tel. 055) 246-5653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법운정사 주지스님

- (재)음성고동문장학회 이사장
- (사)한국청소년연합회 이사 겸 서울회장
- 안양교도소교정협의회 불교분과 회장

김 래 동 (행정학과 1980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15길 66, 법운정사 (봉천동)
Mobile. 010 . 5219 . 4003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 무 궁 화 전 자

대표이사 이 효 형 (경영학과 88수)

대한불교조계종 성불원



주지 **현 각 스 님** (인철 78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527번길 82-9 | Tel. 033) 764-1729

14개 단과대 불교동아리 창립

2,031명 신행 연합체 '불교학생연합' 발족



단과대별 불교동아리 창단에 이어 5월30일에는 15번째로 ▲일반대학원(동국청년불자회)도 창립됐다.

서울캠퍼스

청년전법을 화두로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가 잇따라 만들어졌다.

이사장 돈관스님은 4월29일 열린 건학위 3주년 연석회의에서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 20개 단과대에 불교동아리를 만들어 동국발전이 불교중흥임을 증명하자”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20일 ▲사회과학대 재학생을 주축으로 첫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이 창립된 이후 ▲경찰사법대학(캠폴스테이) ▲예술대학(진선미) ▲사범대학(불사대) ▲경영대학(다붓다붓) ▲공과대학(공양미300석) ▲불교대학(가람수호) ▲문과대학(나를 찾아가는 여행) ▲AI융합대학(붓다이) ▲이과대학(자연과함께) ▲약학대학(약사여래) ▲바이오시스템대학(아단법석) ▲법과대학(불법단체) ▲미래융합대학(퓨처핸잡) 등으로 이어지며 5월11일까지 서울캠퍼스 14개 모든 단과대에 불교동아리가 만들어졌다.

단과대 불교동아리들은 전공과 불교를 접목한 활동으로 전공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본적인 불교문화 체험에 덧붙여 전공 능력을 살린 동아리 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다.

스 14개 단과대와 일반대학원을 아우르는 2,031명 동국 불자들의 신행 연합체는 6월26일 정기법회를 갖고 모교 재학생 불자 모임 불교학생연합의 시작을 알렸다.

한편, 지난 4월16일 'WISE대학생전법단'을 출범시킨 WISE캠퍼스도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불교학생회, 불교도연합회(불교계 장학생, 불교추천전형, 유학생 불자 등) 등 연합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연등회 재학생 2,000명 참가

창립을 완료한 14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회원 등 2,000여 재학생들은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5월11일 연등회 제등행렬에 동참해 MZ세대 특유의 톡톡 튀는 발랄함으로 '재미있는 연등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폭우 속에서도 불교동아리 학생과 유학생이 빗속에서 동국을 상징하는 '아코등'을 손에 들고 음악에 맞춰 '아코등'을 흔들며 환한 웃음으로 행진해 지나는 곳 곳마다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개교 118주년 학교 발전 공로자 표창



동국가족상에는 홍승기 동국대 명예교수 가족과 이예진 학생(정치외교24)의 가족이 수상했다.

홍승기 명예교수 가족과 이예진 학생 가족은 각각 5명이 동국대 동문이다.

WISE캠퍼스 비전선포식

WISE캠퍼스는 개교 118주년을 기념해 '비전선포식 및 표창수여식'을 가졌다. '미래 비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대학'을 WISE캠퍼스의 새로운 비전으로 수립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학의 발전 목표를 △불교정신에 기반한 동국가치 창출 △참사람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 △지역과 상생하는 지·산·학·연 협업 허브 구축 등으로 설정했다.

개교 118주년 기념식이 5월2일 본관 중강당에서 열려 학교발전에 기여한 교직원에게 이사장 공로상과 총장 공로상, 장기근속상(30년, 20년, 10년)을 수여하는 등 그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한해 동안 기부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구성원에게 주는 기금조성 공로상에는 연극학부 조준희 교수 등 3명이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에는 식품산업관리학과 황재현 교수 등 2명이 수상했다.

직계 3대 이상 혹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국인 가족에게 시상하는 자랑스런

2025학년도 대학입시 '무전공' 선발

모교는 15.7% · 325명 선발

| | |
|------|-------------|
| 광운대 | 25 (408명) |
| 경기대 | 25.1 (576명) |
| 동국대 | 15.7 (325명) |
| 서강대 | 29.9 (465명) |
| 성균관대 | 10.1 (280명) |
| 연세대 | 18.3 (480명) |
| 한밭대 | 30 (487명) |
| 한양대 | 10.5 (250명) |

유형1과 유형2를 더한 정원. 자료 : 각 대학

무전공 선발 유형은 두 가지다. '1유형'은 대학 신입생이 자유전공학부 등으로 들어와 2학년에 올라갈 때 의대와 사범대 등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자유롭게 전공을 택하는 것이다.

'2유형'은 계열이나 단과대 단위로 입학해 2학년 때 해당 계열이나 단과대에서 전공을 택하는 방식이다. 모교는 1유형과 2유형을 합쳐 15.7%를 선발한다.

무전공 선발과 관련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대학이 가산점을 최대로 받으려면 1유형 10% 이상, 2유형 15% 이상 이면서 합계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한다.

비인기 학과 생존 기로

취지는 좋지만 전공을 택할 때 인기 학과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비인기 학과가 생존의 기로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많다.

또 신입생들이 1학년 때 소속감 없이 방황하거나, 2학년 때 원하는 전공을 택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공 없이 입학하는 '열린전공'(전공 자율 선택제) 선발이 입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학년 때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한 뒤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의대 증원 이슈와 달리 무전공은 4년제 대학 대다수가 참여해 다른 전공 정원이 그만큼 줄어든다.

신입생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할 경우 수십 년간 공고했던 학과 및 전공 간 장벽이 급속도로 허물어지면서, 대학 시스템이 크게 바뀔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모교 중앙도서관 '국회의장상' 수상

모교 중앙도서관이 5월23일 전북 부안에서 열린 '제22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장상은 최근 1년간 국회 전자도서관 이용 실적, 원문 제공, 저작물 이용 허락 및 참여도 등을 평가해 학술정보 공유와 유통 활성화에 공로가 큰 기관에 수여된다. 대학도서관으로는 동국대 중앙

도서관이 유일하다.

2002년에 발족한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국회도서관과의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약 7,158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협의회는 학술정보 유통망 운용을 통한 정보 공동 활용, 학술정보 상호교류, 전자도서관 공동연구 및 협력,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다.

'2024년 대한민국 메이커 스타' 주관기관 선정

모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메이커 스타' 경진대회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모교 메이커스페이스 E²GEE Lab(이지랩)은 다양한 작동방식의 산업용 3D프린터 등 전문 장비와 XR기반으로 시제품을 검토해 제품화 지원이 가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우수한 시제품 제작 역량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메이커 스타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휴스(HUSS) 사업 선정

모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신규 연합체(대학)으로 선정되어 연 4.3억씩 3년간 약 13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교육부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은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3~5개 대학이 분야별로 연합체를 구성한 후 연합체별로 소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물적·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사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선정

모교가 교육부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의 '지자체 참여형' 신규 분야 연합체로 선정됐다.

혁신융합대학은 첨단산업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지만 전공이 달라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대학생들을 위해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참여 기관인 모교는 연 16억씩 4년간 64억을 지원받게 됐다.

‘동북공정’ 연구 헌신한 이태영 교수 별세



이태영(사학51) 한국국제교과서연구소장이 6월8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92세.

전북 익산 태생인 고인은 모교를 졸업하고 독일 본대학, 오스트리아 빈대학에서 유학했다. 동국대 사학과 교수, 국토통일원 연구위원, 원광대 교수 겸 통일원 평화통일연구소장을 거쳐 호남대 학장(총장)을 지냈다.

1963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일본 도쿄에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소속 이좌영씨와 만난 뒤 수차례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국정원)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허위진술을 강요당했고, 1974년 반공법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2014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동구사회 형성의 연혁과 정치 현실’ (1980), ‘세계문화사’ (1986), ‘게르만과 슬라브’ (1993), ‘중구(中歐)의 역사와 정치’ (1993) 등 저서와 ‘비스마르크’ (1975) 빌리 브란트 저 ‘평화회의의 의지’ (1975) ‘독일사회민주주의100년’ (1989) 등 역서를 남겼다.

퇴직 후 일본과 중국의 역사교과서 문제와 동북공정 대처 방안 등에 관심을 쏟아 1990년 한국국제교과서연구소를 설립했고, 칭화(淸華)대 중한역사문화연구소 원장을 맡기도 했다. ‘한·일 역사교과서 수정의 제문제(編)’ (1995), ‘고대 동북아연구-어제와 오늘’ (2008) 등 저서를 펴냈다.

‘농무’의 시인 신경림 동문 타계



한국 문단의 거목 신경림(영문54) 시인이 5월22일 숙환으로 타계했다. 향년 89세.

장례는 대구모 문인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은 한국시단이 관념을 희롱하던 무렵, 농투성이들의 신명을 민요 가락에 담은 시 ‘농무’ (農舞)를 쓰아 올려 한국시의 새로운 흐름을 열었다. 이른바 ‘민중·민요시인’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삶의 현장에 바탕을 둔 감성으로 누구에게나 깊은 울림으로 다가갈 시편들을 생산한, 특정 수식어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서정시인이었다.

재학 중이던 1956년 ‘문학예술’에 ‘갈대’, ‘묘비’ 등의 작품이 추천돼 등단했다. 1957년 낙향한 그는 광부와 농부, 장사꾼, 인부, 강사 등의 직업을 전전하며 10년이 넘도록 시를 쓰지 않기도 했다. 그간의 경험은 곧 민중의 고달픔을 달래는 시로 재탄생했다. 1973년 농민들의 한과 고뇌를 담은 첫 시집 ‘농무’를 펴냈다.

이후 ‘새재’ (1979), ‘달 넘세’ (1985), ‘민요기행 1’ (1985), ‘남한강’ (1987), ‘가난한 사랑노래’ (1988), ‘민요기행 2’ (1989), ‘길’ (1990), ‘갈대’ (1996),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1999), ‘낙타’ (2008), ‘사진관집 이층’ (2014) 등의 시집을 썼다.

생전에 만해문학상, 단재문학상, 대산문학상, 시카다상, 만해대상, 호암상 등을 수상했으며,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동국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임명 / 선출 / 취임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



민병덕(경영74) 前 KB국민은행장이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6월16일부터 2027년 6월13일까지 총 3년이다.

민 동문은 KB국민은행장, 금융감독원 ombudsman, 트러스트자산운용 사외이사, 모교 개방이사 등을 역임했다.

초대 국가유산청장



최응천(미술78) 문화재청장이 초대 국가유산청장이 됐다.

최 청장은 국가유산 현장과 학계가 인정하는 불교미술 전문가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직으로 근무했으며 국립춘천박물관 초대 관장과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아시아 부장을 지냈다.

외국으로 나간 문화유산 현황과 반출 경위를 조사하고 불법으로 나간 유산의 환수를 추진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옛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제24대 재경 거제시향인회 회장



윤성이(농경83) 前 모교 총장이 제24대 재경 거제시향인회 회장에 취임했다.

앞으로 윤 회장은 전국 각지 거제시향인회의 구심점인 재경 거제시향인회를 바탕으로 고향 거제와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물론 향인 인재 양성과 지역 봉사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지사 문화예술 특별보좌관



정미숙(연영84) 가톨릭관동대 미디어예술대학장이 강원도지사 2기 문화예술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정을 만들기 위해 도민 민생경제와 연결되는 분야를 세분화해 정책자문과 대외협조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화이글스 신임 대표이사



박종태(관광경영85) 동문이 한화이글스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박 동문은 1993년 7월 한화에 입사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레저사업부장, 거제총지배인, 설악총지배인 등을 거쳐 2022년 10월부터 아쿠아플라넷 대표이사를 지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장



임춘호(행정87) 기획조정실장이 7월1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충북본부장으로 부임했다.

임 신임 본부장은 1994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입사해 편집국장, 조합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서재형(전자89)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PD가 6월3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

서 동문은 범부처 예타사업인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 총괄 프로젝트 기획자로 활약했고 다

양한 자동차산업 기술개발과제를 기획해 우리나라 미래모빌리티 산업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전략적 R&D 투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전재수(역사교육90)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서 문화체육관광 위원장직에 올랐다.

전 동문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문체위원으로 활동했다. △청와대 졸속 개방 및 활용 문제 △문화·예술·체육계 약자 문제 △공공 체육시설 안전 문제 △문화·체육 소외계층 지원 확대 △문화재 관리 실태 지적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다.

한국불교학회 제26대 회장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스님(철학96)이 한국불교학회 제26대 회장에 선출됐다.

(사)한국불교학회는 5월24일 모교 덕암세미나실에서 제57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26대 회장에 자현스님을 선출했다. 스님은 2026년 5월31일까지 한국불교학회를 이끌게 된다.

수 상

‘의료기기의 날’ 은탑산업훈장



이준혁(일문88) DK메디칼솔루션 대표이사 ‘제17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은 매년 식품

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을 기념해 주최하는 행사로, 의료기기 산업발전과 안전관리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의료기기 분야의 유공자를 발굴해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

이 동문은 그간 첨단 의료기술을 국내에 소개하고, 엑스레이 장비의 국산화 및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등 의료시장의 혁신을 도모한 업적을 인정받아 이번 은탑산업훈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보건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정주호(의학91) 경주병원장이 ‘제52회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 동문은 현재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 경주시의사회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경찰 인사

치안정감 승진 (행안부 경찰국장)



이호영(경형85) 동문 이 경찰 서열 2위 치안정감에 승진해 경찰대학장에 보임됐다.

이 동문은 1992년 경찰에 입직해 2014년 총경으로 승진해 충남경찰청 정부세종청사경비대장, 서울 강북경찰서장, 경찰청 자치경찰법제팀장,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등을 지냈다.

경무관 승진 후에는 충남경찰청 제1부장,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등을 거쳤고, 지난해 6월 치안감으로 오를 뒤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을 거쳐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보임됐다.

치안감 승진 (경기북부청장)



김호승(경행87) 동문이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기북부청장에 보임됐다.

김 동문은 간부후보생 43기로 경찰에 입

직해 충남청에서 보령서장, 서울청에서 용산서장 등을 지냈으며 경찰청에서 정보장비기획담당관, 범죄분석담당관, 감사담당관 등을 두루 거쳐 경기북부청 공안전부장으로 재직중이다.

그는 현장 치안을 중시하고 소통을 강조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기 부 금

모교 누적 기부액 113억원



권오춘(영문57) 종신 석좌교수가 모교에 5,000만원을 기부해 6월25일 '2024년도 초허당 특별장학 장학 증서 수여식'을 진행

했다.

이번 초허당 특별장학금은 3학년에 재학 중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권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모교에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기부액을 포함해 누적 기부액은 113억원에 달한다.

동국건학장학기금 1억원



김진문(경영64) 신성약품 회장이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국건학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또, 수미산원정대 2기 회장이기도 한 김진문 회장은 6월29일 WISE캠퍼스를 방문해 대학 환경개선을 통한 미래 인프라 조성 기금으로 2천만원을 전달했다.

해마다 모교 발전을 위해 꾸준히 기부하고 있는 김 회장은 이번 기부액을 포함해 누적 기부금이 21억5,000만원에 이른다.

AI 분야 1억원 기부



임각균(산공82) 이트너스(주) 대표이사가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

경영지원플랫폼 전문기업인 이트너스(주)는 AI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산업시스템공학과 재학생 중 AI 분야 연계전공을 하는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트너스(주)는 1998년 창립해 인사·총무 중심의 경영지원솔루션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표준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불교 인재 양성 1억원 기부



황경환(교대원87) 경주아이씨에스 회장이 불교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1억원을 기부했다.

경주에 본사를 둔 화물운송기업 진양유조선을 운영하는 황 회장은 현재 모교 불교대학 불교학부 석좌교수와 21세기불교포럼 이사장 직을 역임하며 불교발전에 힘쓰고 있다.

황 회장은 지금까지 모교에 기부한 금액은 10억원에 달한다.

아들 20주기 기리며 1억원 기부

故 김범수 대위(경영98) 부모님이 모교를 찾아 1억원을 기부했다.

김 대위 부모님은 "아들의 20주기를 기리며 학군단과 학교발전을 위해 기부하고자 한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모교는 부하를 구하고 산화한故 김범수 대위의 이야기를 '동국의 빛' 시리즈로 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부 감사의 뜻으로 부모님에게 현재 제작 중인 내용이 담긴 기념앨범을 전달했다.

동생 기리며 5천만원 기부

임각균(산공82) 이트너스(주) 대표이사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입적한 동생 성안스님(법학85)의 입적 10주기를 맞아 법과대학에 장학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자 뜻에 따라 기부증서도 성안스님 명의로 전달됐다. 장학금은 법과대학에서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성안스님은 1993년 해인사에서 원명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생전에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존국장으로 팔만대장경을 알리는 데에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조경·정원디자인학부 2천만원

조경·정원디자인학부 동문들이 조경학과 발전기금으로 2천만원을 전달했다.

발전기금은 올해 입학 30주년을 맞은 조경·정원디자인학부 94학번 동기회에서 500만원, 3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김부배(81학번) 동문이 500만원, 조경학과 총동창회에서 1천만원을 기탁해 마련했다.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2010년 30주년을 맞은 80학번부터 매년 입학 30주년이 되는 동문들이 후배를 위한 장학기금을 전달해 총 1억9,5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신 간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붓다'



붓다의 생애를 마치 옆에서 지켜보듯 생생하게 묘사한 책이 나왔다.

'붓다'는 종립대학인 동국대에서 처음 발간한 부처님 일대기 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78년 산하기관인 동국역

경원에서 간행한 '부처님의 생애'를 저본으로 주요사건들을 참고하되, 구성과 내용은 완전히 새롭게 서술했다.

붓다의 80년 삶을 관통하는 탄생과 성도, 전법, 입멸이라는 주요한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재배치한 점도 새로운 시도다.

이 책 '붓다'는 마지막 사건인 입멸, 즉 열반의 순간을 가장 앞쪽에 배치했다. 이야기의 흐름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시들도 읽는 재미와 감동을 더한다.

윤재웅 총장은 책에 게재된 시들 중 108개의 시를 추려내어 시집 '열반은 큰 즐거움이여'로 엮었다. 이는 '붓다'의 요약판이자, 붓다의 80년 생애를 보다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방안으로 기획됐다.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 3만2천원)

인공지능시대 주인으로 살기



김희용(무역79) 동문이 지난 30여 년간 과학기술정책평가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경과를 지켜보고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과학기술 앰배서더로서 활동한 경험으로 앞으로 유망기술발전에 따라 나타날 미래직업의 세계를 제시하는 책을 펴냈다.

김 동문은 미래기술산업연구원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86년 KIST입사 후 남극세종기지설립지원, 개도국 및 선진국과의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및 기술사업화 관련업무를 수행했다. (책연 / 1만5천원)

감기에서 천식까지



정주화(한의81) 한의사는 오랫동안 호흡기 질환을 한방치료해 오면서 천식이 두 얼굴을 가진 병이라고 말한다.

한방에서 본 천식의 종류와 그에 따른 다양한 치료 방법과 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해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한방치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소아천식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통계상 10명의 소아 중 1명이 천식을 앓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치미병(병이 나기 전에 다스림)'을 강조한다. (겨리 / 1만5천원)

투자자의 생각을 읽어라



전화성(컴공96) 씨엔티테크 대표가 신간 <투자자의 생각을 읽어라>를 출간했다.

누적 450개 이상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한 액셀러레이터(AC)이자 푸드테크 기업 대표로서 20여년간 겪은 통찰을 담았다.

스타트업 창업자 입장에서 '투자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가'라는 궁극 해답에 초점을 맞췄다.

크게 7부로 구성된 신작은 '4WHY로 설득하라', '매력을 이끄는 IR 6단계로 끝내라', '한끗 차이가 투자를 이끌어낸다', '투자자처럼 생각하라', '회사 밸류업을 위한 제언 TPIE' 등으로 구성했다. (이콘 / 1만8천원)

기 타

2024년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 '온 세상이 한 송이의 꽃'



'2024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가 9월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일까지 나흘간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만해홀)에서 열린다.

불교를 주제로 전세계의 단편과 장편 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 주관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불교영화제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아 더욱 풍성한 개막식과 부대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불교영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영화제 타이틀인 세계일화(世界一花, One World One Flower)는 '온 세상이 한 송이의 꽃'이라는 뜻이다.

유튜브 조회수 700만 기록

김성문(불교미술20) 작가의 졸업작품 유튜브 조회수가 화제다.

꼬박 10개월, 2,340시간을 들여 그린 가로 140cm, 세로 230cm의 졸업작품 '미륵하생경변상도'를 그리는 과정과 결과물을 담은 유튜브 콘텐츠는 조회수 700만을 기록하고 있다.



▲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에 초점을 맞추면 링크가 나타납니다. 링크를 누르면 해당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비 등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동창회비 납부시 성명·입학년도·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만원)

동창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24년 4월 16일 ~ 7월 15일까지 접수분

금액·성명 가나다 순

장학위원회



우학스님 (선학)
대관음사 감포도량 회주
10,000,000



전순표 (농학)
(주)세스코 회장
10,000,000



고용규 (정외)
(주)도우들 대표이사
1,000,000



김중규 (경제)
삼성출판박물관 관장
1,000,000



윤재웅 (국문)
동국대학교 총장
1,000,000



김진문 (경영)
신성약품(주) 대표이사
1,000,000



자광스님 (인도철학)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1,000,000



보광스님 (불교)
청계산 정포사 회주
1,000,000



조희영 (경영)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1,000,000



송석환 (농림경제)
동진기업(주) 회장
1,000,000



차준은 (경영)
EUN Sung MEXICANA S.A de C.V
1,000,000



원용선 (영어영문)
(주)남양이앤씨 회장
1,000,000



한우삼 (농학)
태양금속공업(주) 회장
1,000,000

고문분담금 100만원

감사



김강균 (경찰행정)
김강균법률사무소 변호사
1,000,000



송관수 (회계)
공인회계사사무소 대표
1,000,000



고천석 (정치외교)
광주전남지부 회장
1,000,000



박영순 (산대원)
한일친선협회 부회장
1,000,000



법조스님 (불교)
포항 옥천사 회주
1,000,000



우학스님 (선학)
대관음사 감포도량 회주
1,000,000



이계문 (산업공학)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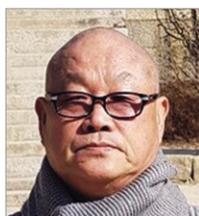
이병선 (사학)
속초시장
1,000,000



윤병관 (화학공학)
(주)이지상사 대표이사
1,000,000



이중극 (경영)
우원팜 대표
1,000,000



지공스님 (사대원)
부산 만덕금융지장사 주지
1,000,000



진각스님 (사대원)
송광정사 주지
1,000,000



최대식 (회계)
K&C세무회계사무소 대표
1,000,000



최유행 (한의)
영도한의원 원장
1,000,000



현각스님 (인도철학)
(사)성불복지회 이사장
500,000

평생회원 50만원

성낙흔 (행대원)

정한민 (농학)
지만호 (행대원)
태연자용스님 (불대원)

상임이사 20만원

고덕수(탄해성울) (불대원)
김종술 (공업경영)
김현삼 (영어영문)
박덕철 (토목공학)
박병은 (영어영문)
박재웅 (국어국문)
박재호 (연극영화)
박종만 (체육교육)
배영훈 (법학)

신유철 (무역)
이강욱 (경영)
이상철 (사회)
임애란 (가정교육)
전정수 (불대원)
정우식 (철학)
조용국 (불대원)
한수한 (APP과정)
현응스님 (불교)
황동휘 (행정)

이사 10만원

강대훈 (행정)
강호균 (행정)

김교필 (화학)
김병수 (회계)
김영극 (전자공학)
김영순 (화학)
김영중 (경제)
김용성 (교육)
나채문 (산대원)
박명준 (건축공학)
박민배 (임학)
박상관 (행정)
배보영 (불대원)
백경선 (불교)
사기순 (국어국문)
손규현 (경대원)
손양호 (불교)
신승철 (행대원)

신유진 (법학)
신화선 (화학)
양정민 (행대원)
엄만용 (건축공학)
우근식 (경대원)
우진스님 (대학원)
유병돈 (공업경영)
윤대호 (전자공학)
윤종근 (토목공학)
이석원 (전기공학)
이양구(법연) (불교)
이윤래 (행정)
이윤영 (토목공학)
이재면 (임학)
이 훈 (수학)
장승수 (언정원)

주정호 (회계)
진재경 (영어영문)
차대식 (사대원)
최승욱 (법학)
최우수 (경제)
최종윤 (경대원)
한광태 (경영)
허남태 (환경조경)
홍원업 (경영)

연회비 3만원

관음사 주지 (경남 진주)
금용사 주지 (대구 달서)
만연사 주지 (전남 화순)

무학사 주지 (경남 함안)
문수사 주지 (충남 서산)
밀봉암 주지 (울산 울주)
보덕사 주지 (경북 칠곡)
사성암 주지 (전남 구례)
삼성암 주지 (서울 수유)
성불사 주지 (경남 거창)
여래사 주지 (경남 진주)
영주포교당 주지 (경북 영주)
옥천사 주지 (경남 고성)
의림사 주지 (경남 창원)
장수사 주지 (강원 인제)
전법사 주지 (부산 동래)
정토사 주지 (경남 거창)
조천사 주지 (경기 용인)
천고사 주지 (전북 진주)

천은사 주지 (강원 원주)
가흥우 (언정원)
강대운 (APP과정)
강동훈 (언정원)
강민지 (경대원)
강영운 (APP과정)
강윤석 (경영)
강재홍 (식품공학)
강중식 (수학)
강진숙 (교대원)
고경희 (APP과정)
고담스님 (불문원)
고승남 (경영)
고유림 (APP과정)
공재현 (무역)

우리은행 1005 - 302 - 718184 (예금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고문 100만원 이상 | 부회장 100만원 | 지도위원 30만원 | 상임이사 20만원 | 이사 10만원 | 일반회원 3만원 | 평생회비 50만원

여러분의 후원금은 35만 총동창회의 발전기금입니다

후원금은 1년에 한번 ... 소중한 정성을 모아주세요.

※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동문께서는 사무처 전화 02-733-030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 및 일반회원 후원금

- 고문 100만원 이상
- 지도위원 30만원
- 이사 10만원
- 부회장 100만원
- 상임이사 20만원
- 일반회원 3만원

부회장



황경환 (교대원)
(주)진양유조선 회장
1,000,000

- 구상본 (국정원)
- 구형모 (APP과정)
- 권은정 (불교미술)
- 기정윤 (APP과정)
- 김기철 (영어영문)
- 김낙현 (체육교육)

- 김동익 (식품공학)
- 김명길 (공업경영)
- 김명석 (정치외교)
- 김민하 (APP과정)
- 김상걸 (사대원)
- 김석중 (대학원)
- 김성자 (APP과정)
- 김성철 (전자계산)
- 김성하 (APP과정)
- 김소연 (연극)
- 김영균 (전기공학)
- 김영숙 (APP과정)
- 김영환 (위생공학)
- 김용선 (회계)
- 김용태 (사회)
- 김용한 (통계)
- 김용홍 (화학공학)
- 김윤상 (정치외교)
- 김종배 (수학교육)
- 김종삼 (식품공학)
- 김지철 (사대원)
- 김진태 (국사)
- 김진태 (무역)

- 김창배 (농학)
- 김한성 (한어)
- 5 김 현 (APP과정)
- 김현승 (독어독문)
- 김현팔 (국어국문)
- 김형민 (경찰행정)
- 김후곤 (법학)
- 김후석 (경찰행정)
- 김희국 (행대원)
- 김희환 (임학)
- 남숙희 (국어국문)
- 류재원 (경영)
- 류해숙 (사회)
- 문현준 (교육)
- 민경선 (농업경제)
- 박경선 (북한학)
- 박광영 (APP과정)
- 박병준 (건축공학)
- 박복형 (APP과정)
- 박세철 (회계)
- 박윤식 (사회)
- 박재필 (경제)
- 박정희 (APP과정)

- 박종률 (화학공학)
- 박준일 (회계)
- 박재도 (일어일문)
- 박형구 (경영)
- 박홍진 (국어국문)
- 백재욱 (APP과정)
- 법광스님 (선학)
- 변유근 (법학)
- 본각스님 (철학)
- 서동일 (경찰행정)
- 서재희 (경영)
- 손성락 (회계)
- 손호목 (회계)
- 송달용 (농학)
- 신진우 (경제)
- 심광보 (물리)
- 심규선 (물리)
- 양정기 (통계)
- 오미경 (APP과정)
- 옹산스님 (불대원)
- 우정스님 (불대원)
- 월공스님 (불교)
- 유영근 (경대원)

- 유제남 (법대원)
- 윤석재 (경영)
- 윤 영 (건축공학)
- 이건왕 (건축공학)
- 이경민 (APP과정)
- 이근우 (불교)
- 이기우 (법학)
- 이길자 (법대원)
- 이병국 (경대원)
- 이병길 (화학)
- 이병삼 (APP과정)
- 이상백 (체육교육)
- 이상범 (불교)
- 이상용 (건축공학)
- 이상진 (법학)
- 이순성 (행정)
- 이연숙 (사회)
- 이영규 (수학)
- 이영희 (APP과정)
- 이인배 (경제)
- 이인용 (무역)
- 이재동 (불대원)
- 이재욱 (영어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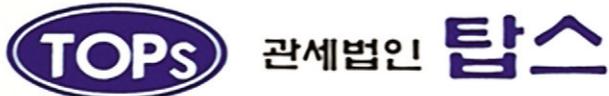
- 이주환 (전기공학)
- 이주환 (정치학과)
- 이준호 (대학원)
- 이지영 (영어영문)
- 이해규 (법학)
- 이현준 (전기공학)
- 일광스님(신정란) (선학)
- 장보선 (교대원)
- 장영상 (식품공학)
- 장원동 (사대원)
- 장철환 (경영)
- 장형순 (전기공학)
- 정광호 (대학원)
- 정병국 (경영)
- 정수웅 (경제)
- 정유식 (법학)
- 정재환 (농업경제)
- 정종문 (APP과정)
- 정종래 (국어교육)
- 정 현 (화학)
- 제갈태동 (경제)
- 조병권 (경대원)
- 조 활 (토목공학)

- 주보연 (불교)
- 차경연 (행대원)
- 채연식 (전자공학)
- 천관영 (정보관리)
- 천수호 (인도철학)
- 최동욱 (화학공학)
- 최병주 (불교)
- 최복락 (행대원)
- 최삼범 (물리)
- 최은기 (독어독문)
- 최종완 (법학)
- 최종하 (경영)
- 최진희 (APP과정)
- 최창경 (회계)
- 하경혜 (화학)
- 하정완 (영어영문)
- 한갑주 (APP과정)
- 한건수 (APP과정)
- 한채훈 (경제)
- 함한진 (정보관리)
- 허관식 (행정)
- 현근스님 (선학)
- 현정스님 (불대원)

- 홍등호 (회계)
- 홍우성 (건축공학)
- 미확인 동문 18명 54

발전기금

- 김태욱 (기계공학) 매월 0.5
누계 : 40,000원 (8회차)
- 동명사 매월 2
누계 : 246만원 (123회차)
- 김영순 (화학) 10
- 원재우 (경영) 21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컨설팅
원산지업무 기업심사 무역·외환

대표관세사 **황 규 환**

E-mail, ghwan02@hanmail.net

천안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길 9-15, 3층 T. 041-576-6377 F. 041-575-4727

대산 : 충남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1942, 2층 T. 041-681-3525 F. 041-681-3527

지사 : 인천 인천공항 부산 군산

www.topscustoms.com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통사 주지 **현응스님** (불교 82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나길 53 (북악산 백사실계곡)



포장기술의 새로운 변화 식품포장의

Global HUB!



072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40, 유상빌딩
Tel. 02) 2631-0066 / Fax. 02) 2672-1348

이트너스

경영지원 서비스에 DT와 시를 입히다.

PAYROLL 인사·총무 경영지원 통합 서비스
급여 운영 컨설팅

SHARED SERVICE

RPO 인사총무 클라이언트 맞춤형 공유 오피스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채용 지원 **ESOP** Etners Smart Office Platform

가치 있는 경영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EFS 교육 산업 특화 풀필먼트·체험 물류

Etners Fulfillment Solution 유희·불용 자산 온라인 매각 솔루션

원스톱 기업 비품 구매 **유통 SHOP** **BIDDING**

유통·물류 틈새 시장의 확실한 연결통로

글로벌 비즈니스 최고의 동반자

글로벌 MOVING
프리미엄 해외이사 플랫폼

MALL·감동타임 국내외 임직원을 위한

RELOCATION 식품·생필품 배송 및 기업 선물 플랫폼

외국인 임직원의 한국 생활Care·정착 지원

대표번호 : 1533-4810 www.etners.com

